

한시 대중화, 그 독자층에 관한 고민*

金 玲 竹**

Ⅰ 국문초록 Ⅰ

한시는 현대시처럼 시인과 독자사이의 일대일 만남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번역’이라는 다리를 통해 양 방향에서 균형을 잡고 ‘제대로’ 전달해야하는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시를 포함한 한문학 전공자들은 그 자신이 독자이기 이전에 대중독자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전달하는 책무를 벗어날 수 없기에 ‘독자’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시 연구자들(번역자를 포함)은 시작품의 作者도 아니면서, 또한 단순한 소개자도 아니다. 끊임없이 독자의 수요심리와 반응을 살펴야 하는 고단한 처지인 셈이다. 번역 작업이 부득이 독자를 의식해야 한다면 ‘대중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할 것이다. ‘한시의 대중화’라는 말은 ‘대중화’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내포한다. 즉 한시를 교양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많이 읽어주길 바란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있다. 읽어주길 바란다면 “읽는 이”, 다시 말해 “독자”에 대한 고민을 차치하면 곤란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고전문학(한시포함)의 대중화, 독자와 관련한 개론적 논의와 세부적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 현재 독자들의 성향이나 수요심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한시, 독자, 대중화, 번역, 수요심리

Ⅰ 목 차 Ⅰ

- | | |
|------------|--------------------------|
| I. 들어가며 | Ⅲ. 어떻게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
| Ⅱ. 기존의 논의들 | Ⅳ. 결어 및 남는 문제 |

* 본고는 2014년 11월 “한시 번역과 연구, 그리고 대중화”라는 주제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발표 당시 토론을 맡아주셨던 성신여대 손유경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임을 밝힌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wenxue@hanmail.net

I. 들어가며

본고에서 말하는 ‘독자층에 관한 고민’이란, 제목에서 밝혔듯이 ‘한시 대중화’를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때문에 흔히 전공 혹은 연계 전공자의 입장은 가급적 ‘독자층’에서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시를 포함한 한문학 전공자들은 독자이기 이전에 대중독자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전달하는 책무를 벗어날 수 없기에 ‘독자’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시는 현대시처럼 시인과 독자사이의 일대일 만남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번역’이라는 다리를 통해 양 방향에서 균형을 잡고 ‘제대로’ 전달해야하는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시 연구자(여기서는 학술적 연구, 번역작업을 모두 아우른다)로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當然한 문제이며, 當面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은 시작품의 作者도 아니면서, 또한 단순한 소개자도 아니다. 끊임없이 독자의 수요심리와 반응을 살펴야 하는 고단한 처지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전문학 전공자 전반에 해당하며, 비단 한시 연구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닐 터이다. 그나마 고전 소설 분야는 조금 낫다. 대중 독자들을 고려한 눈높이 번역이 가능하며 컨텍스트(context)의 비교적 자유로운 변주 혹은 축약, 變改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한시는 스토리텔링에 취약한 면을 지니고 있어 독자와의 거리 좁히기가 참으로 어렵다.

‘한시의 대중화’라는 말은 ‘대중화’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내포한다. 즉 한시를 교양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많이 읽어주길 바란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다. 읽어주길 바란다면 “읽는 이”, 다시 말해 “독자”에 대한 고민을 차치하면 곤란하다.

사실, ‘독자층’에 관한 정밀한 논의를 하려면 연령대, 성별 등으로 비교군을 형성하여 설문조사나 이를 토대로 한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는 한시 대중화를 위한 출판전략이나 마케팅 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자의 역부족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나마 원고를 엮으려 하는 시도는 필자(혹은 다수의 한시 연구자)가 평소 지녔던 궁금함을 구체화 시켜보자는 소박한 바람에서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고전문학(한시포함)의 대중화, 독자와 관련한 개론적 논의와 세부적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현재 독자들의 성향이나 수요심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기존의 논의들

- a. 김동준의 『번역학 관점에서의 한국한문문학작품 번역 재론-한시 번역을 중심으로』¹⁾는 제목에서 揭示

1) 김동준, 「번역학 관점에서의 한국한문문학작품 번역 재론-한시 번역을 중심으로」, 『고전번역연구』 3, 2012.

하지는 않았으나 분명 ‘한시 대중화’ 논의와 관계가 있다. 한시 번역과 관련한 문제는 대중화 문제와 직결되는데, 그는 번역의 구성주체를 원작자-번역자-독자로 단순화하여 각각의 역할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여기서의 독자는 불특정 다수의 ‘번역물을 읽을 가능성’을 내포한 이들이다. 즉 어떤 특수한 계층, 가령 연령대 혹은 성별 직업군 등으로 분류한 타겟 계층이 아니라 확산 독자층인 셈이다. 한시는 주지하다시피 번역자가 원작자와 시대적 간극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 후에 원작자들과 독자층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다. 김동준의 견해에 따르면 여기서 번역자는 갈등 아닌 갈등의 기로에 놓인다. 과연 독자를 원작자에게 안내할 것인가, 아니면 원작자를 독자에게 안내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 말이다. 이는 곧 독자를 수동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혹은 능동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도 맥이 닿는다. 그의 논의는 독자를 ‘능동적 주체’로 파악하는데, 독자는 그저 던져주는 번역물을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독자층의 관계망을 잘 살피는 최선의 번역을 지향하자는 다소 평범한 방안을 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번역의 실례를 들어 ‘독자’들에게 환영받는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대중 독자층의 일반적 성향을 역추적해 나간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중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춘 평이한 번역, 해석을 위해 ‘유평’장치의 강화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독자를 수동적이고 고정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다. 독자 자신이 지닌 껌냥대로 번역이라는 자극을 수용하되, 내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역시 독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 b. 강명관은 『국문학의 대중화, 어떤 대중화인가?』²⁾에서는 대중 독자들을 위한 ‘문체’의 고민을 말하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국문학’의 범주를 근대 이전에 생산되었던 고전문학과 한문학으로 상정했다. 때문에 그의 논의는 한시 문제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주로 텍스트를 접근함에 있어 발상을 전환하여 컨텍스트의 외연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글쓰기 방식의 변형을 대중화의 대안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독자층’을 배려한 ‘문체’ 개발에 역점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는 독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당길만한 ‘문체’, 그들이 어떤 문체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한시 분야를 포함한 고전문학, 한문학의 글쓰기는 특히나 다양한 글쓰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문적 글쓰기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시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며, 비단 번역뿐 아니라 시작품을 설명하는 평석 부분도 걸쳐져 있다고 사료된다.

- c. 김풍기의 『고전의 번역과 대중화, 그 현실과 전망』³⁾ 역시 ‘한시 대중화’를 집중적으로 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전’의 범주에 ‘한시’ 역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논의이다. 특히 저자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독자들을 쉽게 고전의 세계로 이끌 것인가 고민한다. 즉 ‘이끄는 주체’를 역

2) 강명관, 「국문학의 대중화, 어떤 대중화인가?」, 『어문학』 114, 2012.

3) 김풍기, 「고전 번역의 대중화, 그 현실과 전망」, 『우리말글』 56, 2012.

자와 연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 독자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처해있다. 그는 대중 독자의 일반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교양 차원의 독서를 하는 독자는 어떤 방식의 번역이든 읽기 쉬운 작품을 통해 제반 지식을 얻으려하며,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것이든 수용한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에 집착하거나 파워 블로거들의 다양한 평들, 관련된 정보의 홍수는 독자의 가치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을 ‘고급 독자’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바로 역자, 연구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들의 역량이 ‘독자의 질’을 담보 한다는 견해이다.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서 역자 및 연구자가 얼마나 고심해야 하는 가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독자’ 문제에 있어 필자의 管見은 조금 다르다. 저자가 지적한 소위 정보의 홍수 역시 ‘대중 독자’의 손에서 다량 나오고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이다. 즉, 독자는 ‘수동적이기만’ 한 존재인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 d. 류찬열은 『현대시 연구의 대중화 방안 연구-시 모음집과 해설서 출간 현황과 수용양상을 중심으로』⁴⁾에서 현대시의 대중화 측면을 논했다. 연구대상이 현대시이기는 하지만 ‘詩’라는 장르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그 궤를 함께 할 수 있다. 글 매체는 문화를 주도하는 표현도구로서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 매체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 가운데 문학의 榮華를 담당했던 詩는 한시, 현대시를 막론하고 지금의 대중 독자에게 크게 다가가지 못한다. 류찬열은 죽어가는 ‘현대시’를 대중 독자 속으로 녹아들게 할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대중은 시를 어떻게 욕망하는가”에서 ‘독자층’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시가 대중 독자를 향하기에 앞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은 ‘번역’이라는 현대어이기 때문이다. 류찬열은 텍스트를 ‘독자적으로 향유하는’ 대중 독자의 가능성을 力說한다. 즉, 독자가 자신의 주체적 감상은 물론이며 ‘아마추어’의 시각으로 평석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이 덧붙인 해설이 권위가 있다면 독자들을 시로 유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편 독자들의 주체적 감상과 해석을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려울 필요도 없는 시를 너무 어렵게 평석해 놓는 식이라면 부러 독자와의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김풍기와는 다른 견해이며 김동준의 견해와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상의 독자와 관련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역설적이게도 ‘한시’라는 문학의 꽃이 ‘문학주의’라는 영역을 벗어나야만 대중 독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전문 역자나 연구자로서 한시가 지닌 역사성, 정형성, 미학적 특질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갇혀버린다면 능동적 주체로서의 독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풍기의 ‘독자’ 프레임은 바로 이와 관련 있다. ‘독자’를 매체에 영향 받아 가치판단에 혼란을 겪는 수동적 입장으로 간주한 그의 논의와는 달리, 다른 세 연구자들은 ‘독자’의 능동성에 주목했다.

4) 류찬열, 「현대시 연구의 대중화 방안 연구-시 모음집과 해설서 출간 현황과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5, 2011.

Ⅲ. 어떻게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앞서 제시한 ‘독자’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키고 구체화하는 기초 작업은 무엇보다 현재 어떠한 한시 번역서와 시 평석이 대중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이고도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 포털에서 검색되고 있는 다양한 도서 정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한시’라는 검색어로 범주를 집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렬된 도서들을 인기도,⁵⁾ 판매지수,⁶⁾ 리뷰⁷⁾ 등의 항목으로 재배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뷰’는 인터넷 세대에게 익숙한 독서 문화이기도 하다. 독자 리뷰 문화는 초기에 기호나 취미를 함께하는 동호회 내에서 ‘정보 나누기’의 형태였다. 하지만 이제는 독자가 독자에게 추천하는, 출판사로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믿을만한 전략의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이렇듯 독서 리뷰 문화가 확산된 만큼 부정적 시선 또한 만만치 않다. 출판사의 이벤트 마케팅으로 책을 제공받고 댓가성 리뷰를 작성하는 사례는 그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느 문화 현상이나 불신과 천박함의 화소는 존재한다. 이러한 리뷰가 못미더울지라도, 결국 이 역시 대중 독자의 ‘수요심리’를 파악해 작성해야 함을 쓰는 이도 자각하고 있다. 이를 작성하는 것도 독자이며, 이를 취하거나 버리는 것도 역시 독자이다. 때문에 전부를 참조할 수는 없지만, 전부를 버릴 수도 없는 ‘독자’에 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필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다음과 같이 도서 구매 사이트인 yes 24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⁸⁾

a. <리뷰 순서>

	저자	제목	출판사	연도	판매지수	리뷰지수
1	홍상훈	한시에서 배우는 마음 경영(양장) - CEO가 읽는 클래식02	새빛에듀넷	2010년 10월	48	60
2	정민	(보급판)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보림	2002년 07월	12,093	43
3	정민	우리 한시 삼백수 : 7언절구 편	김영사	2013년 12월	15,912	12
4	정약용, 정민 편저	한밤중에 잠깨어 : 한시로 읽는 다산의 유배일기	문학동네	2012년 06월	1,680	10

5) 인기순 정렬은 검색된 결과에 대해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형식이다. 판매지수보다는 좀 더 최근 판매량이 많은 도서들을 먼저 보여준다.

6) 판매지수는 판매부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로서, 필자가 조사한 예스24의 경우 6개월 내의 단위 누적 집계(6개월 판매분에 대한 수량과 주문건)를 의미한다. 결국, 판매지수가 높다는 것은 현재 호응도가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독자의 선호도를 일정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7) 리뷰는 책에 대한 독자의 서평이 많은 순서대로 도서를 정렬해준다.

8) 한시 번역서의 판매지수, 인기도, 리뷰횟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는 <http://www.yes24.com>(예스24), www.kyobobook.co.kr(교보문고), www.aladin.co.kr(알라딘)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판매지수는 예스24이므로, 필자 역시 리뷰/인기도/판매지수의 표본을 예스24에서 수집했다.

	저자	제목	출판사	연도	판매지수	리뷰지수
5	김풍기 저	옛시에 매혹되다 : 한시에 담긴 옛 지식인들의 사유와 풍류	푸르메	2011년 10월	294	7
6	윤인현 저	한시 달곳대 : 한시에 담겨진 옛 이야기들	이담북스 (이담Books)	2012년 11월	156	5
7	이병한 편	치자꽃 향기 코끝을 스치더니 :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1	민음사	2000년 07월		4
8	이병한 편	이태백이 없으니 누구에게 술을 판다? :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2	민음사	2000년 07월	384	3
9	이종묵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년 02월	246	3
10	선현경 글, 그림/ 정민 감수	처음 만나는 한시	휴머니스트	2009년 03월	234	3

b. <리뷰 내 판매지수>

	저자	제목	출판사	연도	판매지수	리뷰지수
1	정민	우리 한시 삼백수 : 7인절구 편	김영사	2013년 12월	15,912	12
2	정민	(보급판)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보림	2002년 07월	12,093	43
3	정약용, 정민 편저	한밤중에 잠깨어 : 한시로 읽는 다산의 유배일기	문학동네	2012년 06월	1,680	10
4	이병한 편	이태백이 없으니 누구에게 술을 판다? :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2	민음사	2000년 07월	384	3
5	김풍기 저	옛시에 매혹되다 : 한시에 담긴 옛 지식인들의 사유와 풍류	푸르메	2011년 10월	294	7
6	이종묵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년 02월	246	3
7	선현경 글, 그림/ 정민 감수	처음 만나는 한시	휴머니스트	2009년 03월	234	3
8	윤인현 저	한시 달곳대 : 한시에 담겨진 옛 이야기들	이담북스 (이담Books)	2012년 11월	156	5
9	홍상훈	한시에서 배우는 마음 경영 (양장) - CEO가 읽는 클래식02	새빛에듀넷	2010년 10월	48	60
10	이병한 편	치자꽃 향기 코끝을 스치더니 :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1	민음사	2000년 07월		4

c. 〈인기도 순서〉

	저자	제목	출판사	연도	판매지수	리뷰지수
1	정민	우리 한시 삼백수 : 7언절구 편	김영사	2013년 12월	15,912	12
2	정민	(보급판)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보림	2002년 07월	12,093	43
3	안대회	새벽 한시 : 빛과 어둠을 만나는 시	태학사	2014년 11월	1,338	
4	정약용, 정민 편저	한밤중에 잠깨어 : 한시로 읽는 다산의 유배일기	문학동네	2012년 06월	1,680	10
5	허경진	허난설헌 시집(개정판) - 한국의 한시 10	평민사	2013년 04월	2,844	
6	이규일 역해	한시 교양 115 : 중국 어문교과서 수록 필수 암송 한시 115수	리북	2013년 05월	930	
7	허경진	매창시집(개정증보판) - 한국의 한시 14	평민사	2007년 11월	840	1
8	이병한 편역	한시 365일 : 하루 한 수	궁리	2010년 03월	666	
9	이병한 편	이태백이 없으니 누구에게 술을 판다? :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2	민음사	2000년 07월	384	3
10	김풍기 저	옛시에 매혹되다 : 한시에 담긴 옛 지식인들의 사유와 풍류	푸르메	2011년 10월	294	7

우선, 독자의 기호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인기도’와 ‘리뷰’ 항목을 기준으로 1위~10위까지의 순으로 정렬해 본 결과이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상위 몇 개 항목은 겹치는 경우가 있다. 의외의 항목도 있는데 a.〈리뷰순서〉 1위인 홍상훈의 『한시에서 배우는 마음 경영 - CEO가 읽는 클래식02』이 그것이다. 이 책은 c.〈인기도 순서〉에서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60개의 리뷰가 달려 있다. 판매지수가 다른 책에 비해 높지도 않다. ‘리뷰’는 ‘판매지수’와 비례하지 않지만, ‘인기도’는 ‘판매지수’와 대개 비례한다. 이는 책이 팔려나간 부수와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 어떤 유형의 한시 번역서가 독자의 호응을 얻었는지 수치로 보여 준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순위는 타 사이트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렬해도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상위일 수록 변동은 드문 편이다.

다음은 위에서 정리한 목록 가운데 리뷰들을 뽑아 제시한 것이다.

a.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한시 이야기』(정민)

〈독자 리뷰〉 유정맘 | 2012-07-08 | 추천8 | 댓글14

.....한시와 더불어 그림이 나오니 시를 읽고 이 시가 나타내는 걸 뭘까하고 생각을 하도록 도와준다. 물론 정민 교수님이 생각이 이어지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 그동안 시를 읽으면서 그냥 읽었다는 생각이 든다. 위에 있는 꽃향기 그림처럼 시를 읽고 ‘그 느낌이 좋다’로 끝내지 않고 그 의미를 더

생각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게 뭔가 더 느껴야겠다.

위와 관련한 댓글: eunbi, 2012.7.8.

이 책, 기억납니다...한자가 정확한 어의 전달엔 어려움이 없는건 아니지만, 해석의 자유로움이랄까...그런 여유가 있어 자신의 그릇만큼 답을 수 있다는게 좋습니다....

유정맘 2012.7.9

책에 한시가 많이 나오는데도 전 한시보다 해석과 글쓰기가 눈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ㅎㅎ 해석의 자유로움 그리고 생각 넓히기. 제가 좋은 책을 읽는 거 맞네요.

b. 「우리 한시 삼백수: 7언절구 편」(정민)

〈독자리뷰〉 wizardkci | 2014-02-16 |

시는 참 어렵다. 시는 절제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글이다. 무수히 많은 감정을 몇 자 안 되는 글로 전달해야 한다. 시를 쓰는 것은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어야 가능하다. 감수성이 별로 없는 나한테 시는 정말 어렵다....참 많은 한시가 있는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년도만 달랐지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사랑하고, 이별하고, 자연을 보며 드는 생각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 그리고 보면 사람 사는 세상 뭐 그리 다를까.

c. 「옛시에 매혹되다: 한시에 담긴 옛 지식인들의 사유와 풍류」(김풍기)

〈독자리뷰〉

이처럼 저자는 일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루어 한시에 대한 친근함을 유도한다. 어렵다는 생각만 접어도 한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이 책은 쉬운 책이 아니다. 특별히 한시에 관심이 많거나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용할 책이다. 그 외의 독자에게 책에 수록된 한시를 통해 선조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운 꽃을 마주할 때마다 ‘꽃의 문화사’,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엔 ‘이별과 문학’, 비가 오는 날엔 ‘비온 뒤의 산을 오르며’ 부분을 펼쳐 읽는다면 한시와 더 가까워질 것이다

d. 「이태백이 없으니 누구에게 술을 판다?: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2」(이병한)

〈독자리뷰〉 철이 | 2001-07-15 | 추천0 | 댓글0

1권, ‘치자꽃 향기 코끝을 스치더니’가 봄과 여름을 노래한 것이라면 그 2권 ‘이태백이..’는 가을과 겨울을 위한 한시를 뽑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은 쉬이 어떤 하나의 시를 단정하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새로운 향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 독자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느낄, 감동을 여백으로 남겨놓은 책이랄까. 한시를 대하고 싶지만, 막상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또 골라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나의 경우를 보았을 때 틈나면 꺼내들고 후루룩 읽는 이 책은 참 고맙다. 입문서로도 좋고, 여러

한시 서적들을 독파한 분이라면 계절별로 모아놓은 그것에 매료될 직하다.

e. 『우리 한시를 읽다』(이종목)

〈독자리뷰〉kjj8125 | 2009-02-25 | 추천4 | 댓글0

한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한시는 어려운 분야다. 책 겉장 떠들어 봤다가 모르는 한자들이 와르르 쏟아지면, 그 민망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한글로 번역된 한시들도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이것은 수두룩한 전고들 때문이겠지... 이 책은 책 표지를 보고 일단 안심이 되었다고 하겠다. 어딘지, 세련되면서 쉬울 것 같은 느낌. 야한 느낌의 표지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야한 표지다. 그래서 더 쉽게 집어 들었는지 모른다. 중국의 한시와는 다른 우리나라 한시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이 책의 저자는 구절구절 전하고 있다. 아마도 이 책의 필자는 시인이자 시인이지 싶다. 약력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이지만, 내 보기에 이하는 시인일 것이다. 그것도 한시를 짓는 시인.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시 속에 담긴 모습들을 면면 집어내지 못할 것이다.

아직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고, 반 이상 봤는데, 재미있다. 처음에 평측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뒤에는 술술 시인의 입을 통해 우리 한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뚝뚝 뚝뚝 쏟아진다.

f. 『한시에서 배우는 마음 경영』 홍상훈

〈독자리뷰〉zoohak | 2010-12-02 | 추천0 | 댓글0

한시는 시인의 정서와 느낌을 한자로 기록한 시이다. 한시는 형식에 정형성이 있어 한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전공자나 한시에 흥미가 많은 독자의 몫이며 우리는 이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시에 관한 서적은 대부분이 전공자를 위한 학술적 도서나 어느 정도의 사전지식이 필요한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출간된 ‘한시에서 배우는 마음경영’은 전공자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시를 해석하고, 작가의 생각을 덧붙여 해설하여 독자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릴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는 시 42수를 정선하여 수록하고 있다...선인들이 남긴 한시는 항상 경쟁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을 돌아볼 수 있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이 많다. 당시의 시인의 고통과, 고민을 통해서 시인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아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여유와, 안정을 위해 읽어보직한 글과 책이다. 저자가 중국문학전공이라 중국의 한시만으로 구성되어 우리 선인들의 삶과 여유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a~f까지의 독서 리뷰는 앞서 인기도와 리뷰를 기준으로 정렬한 항목에서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한자교 육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것은 ‘漢子의 어려움’, ‘詩의 어려움’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지겹던 한문시간 기억’은 한시는 물론이며 한문학과 관련한 리뷰에 식상할 정도로 빈출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자의 이러한 반응은 답답한 선입견이자 장애물이다. ‘한자는 어렵다’, ‘시는 어렵다’, ‘한시

는 더더욱 어렵다’는 한시 번역, 연구자들과 독자 모두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자리한 셈이다.

앞서 제시한 리뷰들을 살펴보면, 소위 다수의 대중 독자가 선택한 한시 번역 및 평석은 적어도 ‘어렵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역자나 연구자가 시종 친절하며 학자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민의 한시 번역 및 평석이 대중 독자의 호응을 얻는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고정적인 독자들을 확보했고, ‘정민이 읽어주는 한시’, 더 나아가 ‘정민식 고전’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특히 리뷰 내 판매 지수나 인기도 등의 항목에서 최상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한시 300수』의 경우는 한시 텍스트에 대한 번역자와 독자의 感度 차이를 염두에 둔 친절한 평석이 눈에 띈다. 『우리 한시 300수』는 주석을 최소화 하는 대신, 시를 산문으로 풀어쓰는 방식을 택했다. 즉, 원시의 번역에서 독자에게 다 전달하지 못한 行間의 내용을 산문으로 다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다양한 층위의 독자가 있는 만큼 다양한 감상과 분석이 나오기 마련이다. 제시한 리뷰를 포함하여 필자가 살펴본 리뷰들을⁹⁾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정서가 흐르고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 독자들은 한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원작자의 의도보다 그들의 마음 상태나 매일 경험하는 일상과 맞물려야 친숙하게 느낀다.
- 역자나 연구자의 친절함은 원작의 이해를 돕는 방향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시’의 정형성이 지닌 무게감을 덜어 해석의 여백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 즉, 부담 없이 독자 자신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를 원한다.
- 한시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독자의 층위를 독자 자신이 나누는 경향이 있다. 한시를 전공하거나 흥미를 갖고 있는(이는 한시에 관련한 제반 지식을 소유했다는 전제하의 흥미이다.)독자와, 이와 무관한 독자로 상정한다. 전자는 한시의 미학적 특질, 문학사적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며, 후자는 그들의 當代에도 유효한 정서를 자의적으로 추출하여 감상하는 이들이다.
- 한시를 ‘위로’의 도구로서 활용한다. 이는 한시의 원작자가 독자와 친밀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시대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시인에게서 확인하고 공감하며 위로 받는 것이다.

몇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 이해한 바는 이들이 ‘주체적, 능동적 독자’로서의 기능을 분명하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중 독자는 한시 번역과 해석에 여유를 두어 본인들이 개입할 만한 ‘장’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해, 한시 역자나 연구자의 지나친 개입이나 일방적인 전달을 크게 바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역자와 연구자의 갈등은 남는다. 독자에 대한 이 같은 고민이 기왕의 상업적 프레임에 갇혀서 ‘팔릴만한’ 한시 번역서만 양산해 내는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양심적으로 양질로서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화’는 독자 즉, 소비하는 향유계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역자나 연구자 스스로 발상의

9) 지면상 해당 리뷰를 모두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발표문에서 제시한 정렬 기준을 적용하여 교보문고/에스24/알라딘 등의 리뷰를 살펴본 결과들을 말한다.

폭을 넓혀야 함은 당연지사다. 우리(역자, 연구자)는 原詩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번역만으로 그 미적 특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조급함을 지니고 있지만, 독자들은 이와 무관하게 여유롭다. 그렇다면 한시의 정형성이나 배경적 지식에 갇히지 않고 독자의 일상과 함께 버무릴 줄 아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의 ‘이슈’는 무엇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IV. 결어 및 남는 문제

앞서 기존 한시 번역서들과 그에 관한 리뷰를 통해 어떠한 한시 번역서들의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한시의 대중화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실, 그간 한시 연구자들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시 대중화 작업은 번역과 평석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독서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직접적인 시도 역시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독자 리뷰와 연계하여 수준을 提高시킨 양질의 리뷰를 생산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즉, 이미 출판된 다양한 번역서들에 대해 연구자 자신이 관심을 갖고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소위 영화나 음반 시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문가 평점과 전문가 후기 방식과 비슷한 기능을 기대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한시 연구자와 독자사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즉 양질의 번역서를 추천하고 알리는 통로는 다양하다.

우선 ‘현재’를 사는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뜻을 함께 하는 한시 연구자들이 꾸준히 共著 형식으로 목소리를 내어 그들 자체가 신뢰할 만한 지명도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화시대에 분명 得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대중화 영역에 초보인 한문 고전의 경우 이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릴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SNS를 통해 학술활동이나 교양으로서의 고전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왕의 출판이 기획된 서적들에 대해서도 지면을 통해 알리는 것을 넘어 podcast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이다. 일례로 휴머니스트, 위즈덤하우스 등의 출판사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비단 책 판매 부수만을 우선한 시도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podcast를 통한 소개는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저자 혹은 역자들과의 직접 소통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결국 공감대의 문제이다. 또한 한시에 담긴 다양한 정서와 삶의 지혜들을 현대적으로 얼마나 잘 치환하여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한시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안고 가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명관, 「국문학의 대중화, 어떤 대중화인가?」, 『어문학』 114, 2012.
- 김풍기, 「고전 번역의 대중화, 그 현실과 전망」, 『우리말글』 56, 2012.
- 류찬열, 「현대시 연구의 대중화 방안 연구- 시 모음집과 해설서 출간 현황과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5, 2011.
- 정 민, 『우리 한시 삼백수 : 7언 절구편』, 김영사, 2013.
- 정 민, 『한밤중에 잠깨어; 한시로 읽는 다산의 유배일기』, 문학동네, 2012.
- 이병한, 『이태백이 없으니 누구에게 술을 판다?: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 명편』, 민음사, 2000.
- 김풍기, 『옛 시에 매혹되다: 한시에 담긴 옛 지식인들의 사유와 풍류』 푸르메, 2011.
- 이종묵,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 홍상훈, 『한시에서 배우는 마음 경영』, 새빛 에듀넷, 2010.
- 안대회, 『새벽한시』, 태학사, 2014.

사이트

- <http://www.yes24.com>(예스24)
- <http://www.aladin.co.kr>(알라딘)
- <http://www.kyobobook.co.kr>(교보문고)

- * 이 논문은 2015년 5월 29일에 투고되어,
2015년 6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6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7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Populariz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Poetry and Worries about the Psychological Demands of Its Readers

Kim, Youngjook*

The Chinese character poetry are not poetry possible areas for promotion as a one-to-one meeting between the modern poet and the reader. Therefore, balanced translation is what is important. The Chinese character majors is the position to grasp the psychological needs of the reader in the translation properly.

In other words, it is what you want the reader to have to worry presence constantly.

The Chinese character poetry translators and researchers nor the author of the work is also not one who simply introduced. If the translation work if you Observe the psychology of readers, and only worry about the popularization should be accompanied too.

What it is implied by the popularization of poetry. This still means that has not been popular. It means a lot to expect from the Liberal-dimensional poetry reading cycle. In this situation, it is a worrying disregard for the reader is not a good way.

This paper summarized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e popularization of classical literature(Including Chinese character poetry) and to analyze the data to identify the tendencies and psychological needs of the reader.

[Key Words] The Chinese character poetry, translation, readers , the psychological demands, popularization

* Senior Researche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